고통의 바다에서 건져주신 부처님 (하)

원정언 (부산시 사상구 모라 3동)

절을 다녀와서 우울증 약을 먹고 자리에 누웠는데 갑자기 배가 아프고 팔이 쑤시고 머리가 지끈거렸다. 구토증세가 느껴져 토했더니 방금 전에 먹은 약은 안 넘어오고 멀건 물만 토해냈다. 그리고 온몸이 으슬으슬 추워졌다. 우울증 약을 1년 넘게 복용해도 이런 일이 없었는데….

'이제 암이 온몸에 퍼져서 죽으려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자 묘하게 기분이 편안해졌다. 시계를 보니 오후 4시 50분이었다. 가만히 누워 '지금 병원에 가면 담당교수님도 안 계시는 날이고 시간도 너무 늦는데 가야할까'라는 생각을 하던 중 갑자기 무엇인가가 머리 위로 휙 빠져나가는 기분이 들었다.

그리고 배와 머리가 텅 비는 듯 한 느낌과 함께 배 위를 쳐다보자, 돌부처님 상이 배 위에 올라가 있는 것이 보였다.

"어머, 깜짝이야"라고 말하면서 손을 배 위에 갖다 대며 일어나보니 한바탕 꿈이었다.

이런 일이 있어서 마음속에 부처님이 있다고 옛 사람들은 이야기했던 것이 아닐까.

눈 깜짝할 새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다. 갑자기 방안이 온통 빛으로 가득 차는 느낌이었다. 내가 언제 어둡고 우울하게 살았냐는 듯, 마음이 너무나 벅차고 기쁨을 감출 수가 없었다. 그제서야 잊고 있었던 허기가 느껴졌다. 너무나 춥고 아팠던 터라, 기운을 차리고 나자 뜨거운 죽이 먹고 싶었다. 안 그래도 기도하고 내려올 때 스님께서 '흰 죽을 먹으라'고 말씀하신 것이 생각나 가스렌지에 불린 쌀을 올렸다.

부처님을 만나게 된 인연을 생각하자 묘한 기분이 들었다. '내게도 불성이 있다'는 말이 생각났다. 안 그래도 정신과 약을 먹고 있는데 내가 부처님이라고 말하면 사람들은 뭐라고 그럴까. 미쳐도 단단히 미쳤다고 생각하며 웃지 않을까. 하지만 나는 내 마음 속에도 불성이 있다는 생각만으로도 너무 좋아서 감당하기 어려웠다.

그리고 지금보다 더 열심히 사찰에 가서 절도 많이 해야겠다는 결심을 세우게 됐다.

그 뒤 절에 갈 때마다 같은 방향으로 가는 사람만 보면 '저 사람도 절에 가면 나처럼 부처님을 만나 뵙게 될텐데'라는 생각이 들면서 함께 가고 싶은 마음을 억누를 수 없었다. 세상이 너무나 아름답게 보이고, 풀 한포기도 소중하게 느껴졌다.

점차 절이 내 집같이 느껴졌다. 요즘에는 꼭 스님 모시고 기도 정진 하는 것만이 불자의 본분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는다고 해서 비굴할 필요도, 그런 생각이 없는 사람을 업신여길 필요도 없다. 다만 부처님이 하신 일을 널리 알리는 것만이 내가 할 일이 아닐까. 배움도 없고 기도가 뭔지도 모르던 사람이 참 많이 알게 된 셈이다.

요즘의 나는 매일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다 부처님이라는 것을 알려줄 수 있을까 하고 고민하고 있다.

선지식들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 상근기는 60일, 중근기와 하근기는 90일에서 120일이면 불도를 성취한다고 한다. 그렇다면 갖고 있는 것을 다 내놓는 일이 있더라도 한번 해볼만하다는 생각이 든다.

불교대학에서 강의 들으며, 졸립지도 않은데 자꾸만 눈이 감길 때마다 바짝 눈을 뜨고 긴장하느라 힘들기도 했고, 마침내 마곡사로 졸업여행을 떠나면서 무념무상을 느끼기도 했다.

그 3년 6개월 동안 아름다운 연꽃 봉오리들을 본 기분이다. 미세한 번뇌가 없어지면서 법신을 알고 자비를 알게 됐다.

2002년 구정 다음 날에는 이런 일도 있었다. 남편은 술을 마시고 귀가했고, 나는 밥도 약도 못 먹은 채로 있었는데 약이 너무 독해서 빈속에 먹을 수가 없었다. 할 수 없이 야채를 갈아달라고 남편에게 부탁해서 함께 마시려고 했더니 남편이 피곤하다며 짜증을 부리며 야채를 갈아주기 시작했다.

'기왕에 하는 거 잘해주면 얼마나 좋아.' 나는 그런 생각을 하며 국을 데워서 상을 차린 후 식사를 하고 누워서 잠깐 졸았다. 갑자기 꿈속에서 부처님이 나타나 부처님 특유의 미소를 보여 주시며 서운했던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다. 내가 꿈을 꾸면서 "부처님 미소, 미소…"라고 중얼거리니까 남편이 "어디, 어디?"라며 일어났다. 나도 순간 꿈에서 퍼뜩 깨어나 정신을 차렸다. 다시 부처님의 미소를 뵙고 나니 부처님이 더욱 함께 계신다는 생각이 강하게 스쳤다.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는 나는 그런 일이 있고도 3개월 쯤 지나자 다시 믿음이 약해 지고 마음이 흔들렸지만, 그때마다 스님께서 도와주셔서 지금까지 부처님 가피 속에서 살아오고 있다.

불교대학 다니며 법신·자비 알게돼
참선 통해 우울증 벗고 건강 되찾아

사찰에 갈 때마다 역대 조사님들과 스님, 그리고 이곳 운주사의 큰 법당을 창건하신 분들께 날마다 감사 기도를 올리고 있다. 항상 스님 곁에서 어려움을 함께 하는 신도들께도 감사기도를 올리고, 조석으로 부처님께 예불을 올리고 있다. 그리고 부처님의 바른 가르침이 온 세계로 전파되어 모든 생명이 속히 고통에서 벗어나 불국정토를 이루기를 서원한다.

이렇게 부처님 만나 뵙고 무념무상으로 기도하고 법문을 들으면서 일심으로 참선한 뒤로, 나는 점차 우울증을 벗어나게 됐다.

우울증 때문에 그간 30년 넘게 고통 속에서 살아온 것을 모두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이다. 암 투병을 하면서 우울증은 더욱 심해져만 갔지만 부처님을 만나 뵙고 강한 믿음으로 낫겠다고 결심하며 1년 넘게 복용하던 수면제와 우울증 약의 복용을 중지했다.

처음에는 갑자기 약을 끊어서 그런지 머리가 지끈지끈하며 아파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다. 그러나 차츰 좋아지더니 마침내 잠도 잘 오게 됐다. 아마도 불교대학을 다니면서 마음도 안정되어 한결 더 건강해진 것이 아닐까 싶다.

처음 약을 복용할 땐 백혈구 수치가 많이 떨어져서 약도 제대로 먹을 수가 없었는데 한의원에서 체질검사를 하고 몸에 맞는 음식을 꾸준히 섭취했다. 요즘은 음식보다 참선으로 얻는 것을 마음의 양식 삼아 살아가고 있다.

서울에서 처음 암 치료를 받을 때만 해도 수치가 7.8이었는데 부처님을 처음 만나 뵌 뒤 25.7에서 멈추고, 3개월 뒤 검사하니까 수치가 10으로 내려가 있었다. 3개월 후 다시 검사하니 수치가 5로 내려가 있었다. 마지막으로 검사한 수치가 0.9였다.

항암치료 끝나고 회복기간도 없이 바로 암수치가 30이면 다시 독한 주사를 맞으며 살아가야 한다고 들었던 터였다. 나는 우울증이 심해서 그런 치료를 병행해나갔으면 아마도 내 몸과 정신이 견뎌내지 못했을 것이다. 나는 지금도 부처님을 만나 뵌 덕택에 암수치가 25.7에서 멈추었다고 생각하고 있다. 조금만 늦었어도 30이 될 뻔 했는데, 이렇게 힘들게 살아도 부처님을 만나게 되어서 행복하다.

특히 나는 참회기도를 하며 내 참모습을 찾는 것에 많은 도움을 받았다. 참회가 업장을 녹여주기 때문이 아닐까. 우울증을 앓고 계시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부처님의 바른 가르침을 공부할 기회가 닿기를 기원한다. 그래서 건강도 되찾고, 나아가 자기 내면과 바깥이 하나 되어 삶과 죽음의 고통을 넘어설 수 있기를 바란다. (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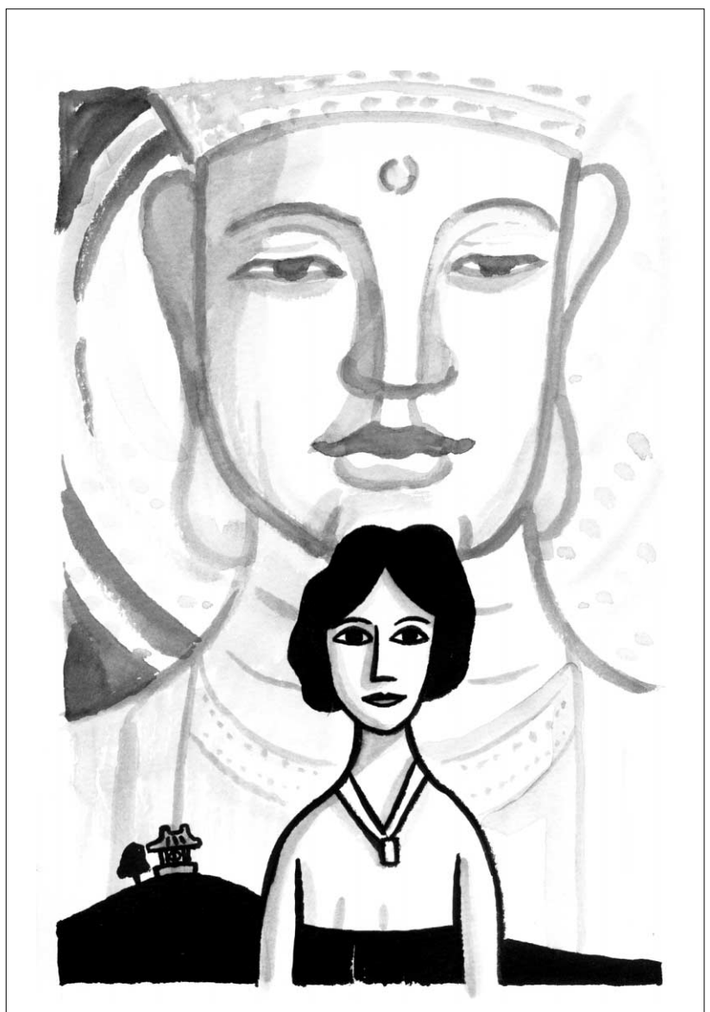


그림 · 문병성

신행수기 일년내내 받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가슴속에만 꼭꼭 담아두었던 감동깊은 신행체험들을 진솔하게 적어 보내주십시오. 연중 접수한 신행수기 가운데 우수작은 소정의 고료를 드리고 신문에 연재하며, 연말에 최종 심사를 거쳐 시상합니다.

- 주제: 신행 및 수행 체험, 불심으로 고난을 이겨낸 이야기
- 분량: 200자 원고지 30매 안팎(A4용지 4장)
- 접수처: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신행수기 담당자
- 문의 전화: (02)722-4162
- 인터넷 접수: renvy@buddhapia.com

김문기 박사의

통증킬러 수정기공요법

의학의 본고장 독일인들을 경악시킨 차세대 치료법. 진통제, 물리치료, 주사, 침, 한약, 비방, 교정법이 모두 필요가 없는 환상적인 기공요법 (S.T.T)

수정기공요법을 알면 귀하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특징
1. 기공수련도 없고, 배움이 어렵지 않습니다.
2. 힘이 들지 않습니다.
3.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4. 경비가 하나도 들지 않습니다.
5. 즉석에서 효과가 나타납니다.
6. 기구나 재료가 하나도 필요가 없습니다.
7. 사술이 아닌 서양의학과 동양기공의 만남으로 환상적인 자연 그대로를 연출하는 요법.

시술대상
두통, 경항통, 구안와사, 안검하수, 목 디스크, 오십견(부위별), 테니스엘보, 늑간신경통, 복통, 요통(부위별), 꼬리뼈교정, 요두증, 사경증, 치아교정, 유방교정, 허리디스크, 좌골신경통, 생리통, 퇴행성관절염, 족관절염, 족저통, 발가락변형, 중풍, 뇌성마비후유증, 전신장애 등등 수술을 제외한 전신의 모든 통증과 신경장애에 탁월한 효과 입증.

비엔나 종합병원에서 임상결과 확실한 효과를 입증하는 인증서 획득

● 교재주문 : 수정기공크리닉 (일금 30,000원) ● 온라인 번호 : 농협 162-02-025918 (예금주 : 김문기)
● 속성강의 접수 : 1개월 과정 (매월 첫째 주 시작 단 4일에 모든 과정을 필함, 선착순 8명)
● 참 고 : 홈페이지 SOOJUNG99.PE.KR 또는 수정기공크리닉.COM ● 장 소 : 수원 성대전철역 앞 전화 031)293-0806. 296-7806

"승기건강비법 신비의효능" [마·가·목]

강원도에는 옛부터 전해오는 속설에 노인이 마가목 지팡이를 짚으면 굽은 허리가 펴지고 아이를 못낳는 여인네가 방안에 마가목 가지를 두기만 해도 수태를 한다는 신령한 나무로써 지금도 승가의 선원에서 참선수도하는 스님들은 기력을 돋구기 위해 마가목 차를 드시고 있으며 산승이 비법을 전수받아 갖가지 진귀한 열매와 약수로 맑고 향기롭게 정성껏 달여서 (1달분 60봉, 보름분 30봉) 보시해 드릴 수 있습니다.

▮ 1988년 11월 6일 오전 6시 40분 - KBS-2 TV "건강하게 삽시다" (강원도 오대산 승가비법 약초기행 마가목을 찾아서)방영
▮ 2000년 10월 25일 수요일 - KBS-1 TV 아침방송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나무차 소개)방영

이 효능은 (본초강목, 동의보감) 기록

첫째로, 그 성질은 따뜻하여 몸이 쇠약하고 풍습비 해수 등을 다스리고
둘째, 흰머리를 검게 하며 두뇌세포를 촉진 통풍, 신경통, 관절염, 기관지염, 방광염, 위염, 폐결핵, 팔다리가 저리거나 허리가 아프고 몸이 차고 냉한 사람에 좋다.
셋째, 중풍에 특효하며 동맥경화, 고혈압, 풍 예방 및 기력을 돋우어 주어 신장 (콩팥)을 튼튼하게 하고 피로를 제거하며 간장을 보호하고 보혈, 신기허약, 조갈증, 당뇨와 고지혈증에 특효하다.
넷째, 불안, 우울, 불면증을 해소하여 골병이 든 어혈도 풀어주며 비만 체질 (지방을 분해하여 살이 빠지며)과 성인병 예방에도 좋다.
다섯째, 심장을 안정시키며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양기를 돋으며 숙취를 해소한다.

※ 계절이 바뀌면서 체질변화로 인해 항상 피로하고 노곤하며 기운이 없는 사람에게 활력이 생깁니다.

"실험사례" 폐 식용유에 마가목 액을 섞었더니 맑게 정제가 됩니다. 즉, 만병의 근원인 혈액속의 콜레스테롤을 제거하여 피를 맑게 합니다.

상담문의 원증태고 보우국사 열반사지 소설산 왕방 수구암
전화번호 : (031) 585-1502 지수 대진 합장

간(肝)이 염간 지방간 경화 간…

건강해야 장수할 수 있습니다.

지리산자락 신비의

참다슬기 농축액

토종 웅담과 비길만한 자연산 참 다슬기로 삶의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 자락 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전통재래식(가마솥) 방법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상쾌한 하루를 열어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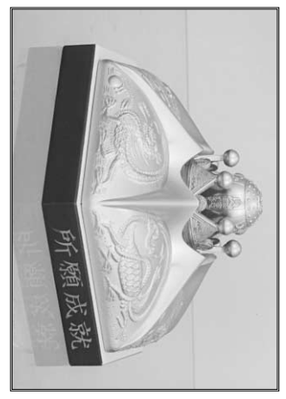
◘ 다슬기 농축액: 지리산 자락 계곡 맑은 물에서 채취한 참 다슬기와 구슬알 다슬기를 죽은 것과 빈 껍데기를 골라 내어 깨끗이 씻고 해금 시킨다. 다음 다슬기 10kg을 분쇄하여 가마솥에 넣고 전통비법으로 다슬기 속살이 녹을때까지 48시간을 다린다. 여기 마늘, 생강, 대추를 넣고 24시간을 더 달입니다. 농축액은 60포 단위로 포장합니다.
◘ 다슬기 기름: 다슬기 15Kg을 항아리에 넣고 왕겨 9가마니를 덮은 뒤 왕겨에 불을 붙여 그 열로 다슬기가 땅속에 묻어둔 빈 항아리에 녹아 흘러내리게 합니다. 다슬기 기름을 만드는데 왕겨가 다 타들어 가기까지 꼬박 8~9이 걸립니다. 한달분은 1.8리터입니다.

『농축액을 개발하여 KBS TV "6시 내고향"에 방영된 이래로 "생방송 좋은아침" MBC TV "고향은 지금" 조선일보, 중앙일보에 소개 됨』

자료신청 : 055) 963-9583 · 상담문의 : 055) 355-5626
산마을 토종 [민속농원]

氣덩어리 북덩어리 氣가막힌 북이틀어와 황금운으로 변합니다.

명당을 만들어 주면 운이 바뀝니다 명당 육氣방



아무리 할려구 노력해도 안되시면
집터나 공장터나 조상 묘지터를 처방해
불화와 우환이 사라지고 하시는 일들이 잘되며 관운, 명예, 사업, 재물운이 옵니다.
이것이 처방이다 명당육氣방 051)865-9933
천도재 49재와 같틀인 처방법 전화주시면 안내 책자를 보내드립니다.
처방전용 명당육氣방은 각 사찰, 암자, 철학관에만 있습니다.